

청소년 탄력성과 학습동기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

김길영^{1*}, 조성제¹
¹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Adolescents resilience and learning motives -External protective factors and Intrinsic learning motives-

Gil-young Kim^{1*} and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탄력성이 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외적보호요인 강화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경기도 E시에 소재한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5일부터 1주일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가정차원의 상호작용,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의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이 높았다. 그리고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학교차원의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의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청소년 탄력성의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 문제와 학업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 theories behind external protective factors. In particular, it sought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adolescent resilience on learning motivation. Students of a public high school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various questionnaires during the week of March 5th, 2013.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acquired data.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family relationships were strong and local community expectations were high, the students' 'attention to implementation processes,' one aspect of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was also high. 'Suitable levels of adventurousness and risk-taking,' another aspect of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was high when school expectations were also high and when relationships at the school level were weaker. The study results verified that the theory that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can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external factors to protect adolescent resilie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s theoretical grounds to address adolescent issues, to develop programs to prevent school dropouts, and to apply the results to future legislative policies.

Key Words : The Adolescent Resilience, External Protective Factors, Motivation for learning

1. 서론

2013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의하면, 최근 고등 학생의 학업중단자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학생수(1,943,798)의 1.9%에 해당하는 39,391

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일반고는 21,198명, 특목고는 1,217명, 특성화고는 12,926명, 자율고는 2,050명으로 2005년에 비해 16,315명이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학업중단자수의 3.4%에 해당하는 13,029명으로 가장 높았다. 학업중단사유는 질병, 부

*Corresponding Author : Gil-young Kim(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9630-1129 email: yumado@naver.com

Received April 23, 2013

Revised(1st May 20, 2013, 2nd June 3, 2013, 3rd June 5, 2013)

Accepted June 7, 2013

적응, 품행, 가사, 기타(어학연수, 해외이주, 해외과견동행, 유학, 대안교육, 가출, 검정고시, 행방불명)로 나누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적응이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1].

수만명의 학생이 해마다 학교를 떠나 집과 거리 혹은 해외로 향한다는 것은 학교의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실상황에서 교사가 다룰 수 있는 학업성취 관련변인은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2].

2013년 3월 28일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보고’에 의하면,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였다[1]. 이러한 교육현실의 실태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다는 일반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동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습동기는 학업의 성취를 위한 동인과 그의 충족을 위한 노력 또는 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의 정도이다[2]. 내재적 동기는 생득적인 경향성에서 비롯된 동기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사고가 경직되지 않아 정보처리가 효율적이며 이해력이 높고, 일에 대해 싫증을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향이 있다[3, 4].

그러므로 내재적 학습동기는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자기결정, 능력, 관심, 흥미, 과제에 대한 몰입, 행복, 흥미 등에 영향을 받는 것[5]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성취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고 가정하는 내재적 동기 이론[6]에서는 인간의 자발적인 활동의 관점에서 동기를 측정하며 외재적 보상(예, 좋은 성적)이나 벌(예, 나쁜 성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다[7].

이러한 이론에 근거할 때,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여 보다 잘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은 학업중단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문제(인터넷 중독, 자살, 비행, 학교부적응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업중단 문제에 있어 부적응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적응적인 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탄력성에 있다고 가정하고 탄력성과 학습동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탄력성이란 변화와 상황적 요구들, 특히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조절하여

유연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능력이다[8, 9]. 청소년 탄력성은 청소년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적 기술과 태도, 능력을 밝히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이해와 진단, 치료적 개입 및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재적응 계획 등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교육적, 치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10].

이해리, 조한익[10]은 청소년 탄력성 구성요인을 크게 개인내적요인과 외적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개인내적요인은 생득적인 경향이 강해 치료적 개입이 어렵다. 외적보호요인은 학교차원,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또래차원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치료적 개입이 비교적 용이하다[11].

탄력성과 학습동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증진 캠프훈련을 통해 학습부진아동의 학습동기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거나[12]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내적으로 동기화시켜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을 높였다는 연구[13]가 있다. 그리고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중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로 성인대상 연구와[14] 초등학교 대상 연구[11]도 있다.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미흡했던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 탄력성의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해결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제언[15, 16]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은 청소년의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하면 내재적 학습동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청소년에게 있어 내재적 즐거움이나 내재적 욕구는 심리사회적 가치가 내면화(통합된)되기 때문에 외적보호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어떤 외적보호요인이 내재적 학습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1.1 연구목적

본 조사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소재하는 E 일반 고등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탄력성의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를 관련하는 외적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립변인인 외적 보호요인에 대한 정의는 이해리, 조

한익[10]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개인의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켜주는(그래서 더욱 유연하게 해주는) 보호기제의 기능을 하는 요인’으로 한다.

종속변인인 내재적 학습동기에 대한 정의는 윤미선[5]의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자기결정, 능력, 관심, 흥미, 과제에 대한 몰입, 행복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탄력성(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와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E시에 위치한 E 일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였으며, 5%유의수준과 80%검정력, 독립변수 8개 및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109명으로 계산되었다.

2013년 3월 5일부터 1주일간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0부를 배포하여 243부를 회수한 결과 설문지 회수율은 97.2%이었으며, 이 중 무응답이 있거나 응답이 불량한 50부를 제외하고 193부를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측정도구는 인구사회학적인 문항, 청소년 탄력성 문항, 내재적 학습동기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두 자기보고식검사(self-report questionnaire)로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성별, 학년, 성적, 종교, 부모학력, 부모유형, 형제자매유무, 생활정도, 동거중인 가족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탄력성 척도는 이해리, 조한익[10]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척도(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를 채택하였다.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는 청소년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보호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요인은 4개의 차원으로, 각 차원은 각각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총 48문항 중 개인 내적 요인 척도를 제외한 외적보호요인에 해당하는 24문항만을 채택하였으며 채점방법은 6점 Likert식 척도이다. 외적보호요인은 학교차원 6문항, 가정차원 6문항, 지역사회차원 6문항, 또래차원 6문항 등 4개의 차원이 각각 2개의 하위요인인 돌봄과 기대, 상호작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Cronbach's α (크론바흐 알파)계수 .897로 높게 나타났다. 이 측정도구는 한국적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도 활용하기 쉽게 개발되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것이다.

내재적 학습동기 문항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가 개발한 것[2]을 사용했다.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4이다. 채점이 간편하고 시행시간도 적절하므로 채택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들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총 9문항의 조작적 정의가 포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점 방법은 4점 Likert식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2개의 하위요인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과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청소년 탄력성 문항과 내재적 학습동기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3 자료분석

2.3.1 통계처리 과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통계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탄력성과 내재적 학습동기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판단하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

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3.2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청소년 탄력성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학교차원 .82, 가정차원 .846, 지역사회차원 .780, 또래차원 .733이다.

내재적 학습동기의 신뢰도는 .764로 검증하였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은 .751,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는 .505로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방법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측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의 학습동기의 KMO 값은 0.824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의 차이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193명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 47.7%, '여'학생 52.3%, 성적은 '상' 18.7%, '중' 72.5%, '하' 8.8%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49.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9.0%, '천주교' 12.4%, '불교' 7.3%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54.8%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과 '고졸'이 각각 45.0%, 42.9%이었다.

부모유형은 '홀벌이 부모'가 44.6%, '맞벌이 부모'가 43.0%이었으며, '주말 부부형태의 부모'는 5.7%, 이혼가정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한부모'형태는 6.7%이었다.

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는 73.1%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26.9%이었다.

생활정도는 '5백만원-1천만원 미만' 39.9%, '3백만원-5백만원 미만' 36.3%, '1백20만원-3백만원 미만' 20.7%, '1백20만원 미만' 2.1%, '1천만원 이상' 1.0% 순이었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의 차이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 부모유형, 형제자매 유무,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내재적 학습동기 전체는 남학생이 평균 2.67, 여학생이 평균 2.53으로 남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p < .05$).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의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은 부모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은 한부모($M=3.03$), 홀벌이 부모($M=2.72$), 맞벌이 부모($M=2.55$), 주말 부부형태의 부모($M=2.50$) 순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이 높았다($p < .05$).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는 남학생(평균 2.57)이 여학생(평균 2.40)보다 더 높았다($p < .05$).

3.2 청소년 탄력성과 내재적 학습동기와의 상관관계

청소년 탄력성과 내재적 학습동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내재적 학습동기 전체는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r=.176, p < .05$)와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고, 가정차원은 돌봄과 기대($r=.154, p < .05$), 상호작용($r=.206, p < .01$)과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며, 지역사회차원은 돌봄과 기대($r=.223, p < .01$), 상호작용($r=.148, p < .05$)과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또래차원과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은 가정차원의 상호작용($r=.211, p < .01$)과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며, 지역사회차원은 돌봄과 기대($r=.216, p < .01$), 상호작용($r=.148, p < .05$)과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학교차원, 또래차원과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는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r=.189, p < .01$)와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며, 지역사회차원은 돌봄과 기대($r=.146, p < .05$)와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가정차원, 또래차원과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3.3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72$ 로 전체 변동의 7.2%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Table 1]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 Resilience and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School Dimension		School D	Family Dimension		Family D	Community Dimension		Community D	Peer Dimension		Peer D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I M T L	
		C	I		C	I		C	I		C	I		attention	risk-taking		
School D	Cares and Expectation	1															
	Interaction	.510***	1														
	School Dimension	.822***	.909**	1													
Family D	Cares and Expectation	.307***	.213*	.291***	1												
	Interaction	.267***	.320**	.342***	.746***	1											
	Family Dimension	.308***	.285**	.338***	.935***	.933**	1										
Community D	Cares and Expectation	.299***	.269**	.322***	.198**	.217*	.222*	1									
	Interaction	.213**	.224*	.252***	.136	.185*	.171*	.515**	1								
	Community Dimension	.292***	.279**	.326***	.189**	.228*	.222*	.850**	.888**	1							
Peer D	Cares and Expectation	.359***	.294**	.367***	.216**	.252**	.250**	.186*	.082	.153*	1						
	Interaction	.274***	.234*	.286***	.496***	.486**	.525**	.360**	.312**	.385**	.403**	1					
	Peer Dimension	.373***	.312**	.386***	.438***	.452**	.475**	.334*	.246*	.332**	.808**	.865**	1				
I M T L	attention to implementation processes	.134	.055	.102	.138	.211*	.186*	.216*	.148*	.206*	.010	.090	.063	1			
	Suitable levels of adventurous-ness and risk-taking	.189**	-.032	.071	.124	.114	.128	.146*	.087	.131	.043	.039	.049	.434**	1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176*	.029	.106	.154*	.206*	.192*	.223*	.148*	.209*	.024	.084	.068	.936**	.723**	1	

* p<.05, ** p<.01, *** p<.001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p<.01), 지역사회차원(β=.193, p<.05), 가정차원(β=.188, p<.05) 순으로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역사회차원과 가정차원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의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차원(β=.191, p<.05), 가정차원(β=.182, p<.05) 순으로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지역사회차원과 가정차원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의 '적절한 모형성과 도전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0.030으로 전체 변동의 3.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나, 추정된 모형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 하지 않았다.

3.4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0.110으로 전체 변동의 11.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

[Table 2] Influence of Lower Factors of Adolescent Resilience on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Dependent Variable : Attention to implementation processes		Dependent Variable : Adventurousness and risk-taking		Dependent Variable :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B	β	B	β	B	β
(Constant)		2.071		1.905		2.015	
School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066	.111	.147	.244**	.093	.181*
	Interaction	-.041	-.095	-.095	-.214*	-.059	-.156
Family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040	-.069	.021	.036	-.020	-.039
	Interaction	.155	.263*	.065	.109	.125	.244*
Community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099	.180*	.069	.123	.089	.186*
	Interaction	.019	.039	.013	.026	.017	.040
Community Dimension	Cares and Expectation	-.048	-.065	-.001	-.002	-.032	-.051
	Interaction	-.039	-.063	-.063	-.100	-.047	-.087
		$R^2 = .094$, adj $R^2 = .055$, F = 2.389*		$R^2 = .086$, adj $R^2 = .046$, F = 2.170*		$R^2 = .110$, adj $R^2 = .072$, F = 2.856**	

* p<.05, ** p<.01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p<.01), 가정차원의 상호작용($\beta=.244$, p<.05),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기대($\beta=.186$, p<.05),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beta=.181$, p<.05) 순으로 내재적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차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차원과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내재적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5). 가정차원의 상호작용($\beta=.263$, p<.05),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기대($\beta=.180$, p<.05) 순으로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차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beta=.244$, p<.01), 학교차원의 상호작용($\beta=-.214$, p<.05) 순으로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학교차원의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외적보호요인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의미했던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 부모유형, 형제자매 유무,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은 부모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았다.

남학생의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가 높게 나온 것은 남학생이 문화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습득하도록 유도되는[17]사회심리학적 가치가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부모 학생의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이 높게 나온 것 또한 부모의 기대가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기 일부 지역의 일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서는 논의의 제한점과 한계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 탄력성과 내재적 학습동기와의 변수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적 학습동기 전체는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유의수준 $p < .05$)와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고, 가정차원은 ‘돌봄과 기대’($p < .05$), 상호작용($p < .01$)과 정의 상관이 있었으며, 지역사회차원은 ‘돌봄과 기대’($p < .01$), ‘상호작용’($p < .05$)과 정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또래차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사한 선행연구로는 이은미[18]와 김영민[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전반적 영역에서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18],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을 거쳐 자기주도학습능력(학습자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19] 하였다.

본 연구와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내재적 학습동기와 조작적 정의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재적 학습동기는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 3가지 차원(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학교차원)과 정의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탄력성이 내재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하였다.

그 결과 가정차원의 상호작용,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기대, 학교차원의 돌봄과 기대 순으로 내재적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 중 학교차원의 상호작용과 또래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차원은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이 높았다. 특히 가정차원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기대가 높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내용적인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고재홍[20]에서는 자기문제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다음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희선[17]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적극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차원, 학교차원의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고민과 청소년 문제해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성택 외 3인(2005)의 연구에서도 대인환경(부모 간 관계)이 개인의 내적성향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이것은 상호작용이 있고 충분한 돌봄과 기대를 받는 청소년은 숙달목표와 수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종합적으로, 외적보호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22] 중도탈락률이 낮으며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각, 인지, 행동전략을 역동적으로 조절한다[23, 24]. 또한 학업에 있어서도 성취도가 높고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경향이 높으며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25, 26]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학교차원의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가 높게 나온 것은 그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교차원의 상호작용은 외재적 학습동기에만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적보호요인을 많이 가진 청소년 즉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보다 안정적이고 내면화된 동기가 많아 적응력, 지속력, 자율성이 높고 내재적 학습동기도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있어 내재적 즐거움이나 내재적 욕구는 심리사회적 가치가 내면화되기 때문에 외적보호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하면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습자의 지식지적능력을 키워 학업성취를 이끄는 데만 주력을 해왔고, 그 결과 학생들은 의존적이며 수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학생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27].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은 학업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기이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동기이론은 특정한 행동을 설명하고 행동의 발생을 예언하며 행동의 수정을 돕기 위하여 개발되었기[28] 때문이다. 물론 단 한가지의 이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이고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는, 이수정[12]의 학습부진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습동

기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다소 낮은 정의 상관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탄력적인 학생은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탄력성이 낮거나 부족한 학생들은 동기를 감소시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탄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29]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이수정[12]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이수정[12]의 차이는 학습부진 아동과 일반 학생의 특징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탄력성의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와 관련하는 외적보호요인 강화 이유를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검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이 학습동기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적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소년 탄력성 하위요인 4가지 차원 중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학교차원의 ‘상호작용’, ‘돌봄과 기대’가 높으면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수행과정에 주의를 집중’,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청소년의 외적보호요인 3가지 차원을 강화하면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재적 학습동기가 높은 청소년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성적보다는 공부하는 과정에 만족하며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학습현장에서는 외재적 보상과 유인이 어느 정도 학습자의 동기를 더욱 강하게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노력이나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재적 보상은 오히려 학습자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외적 보호요인을 강화하면 학업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문제까지도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부분에도 새로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 결과에 덧붙여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중도탈락률이 낮고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각 인지 행동전략

을 역동적으로 조절하였으며, 학업에 있어서도 성취도가 높고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는 경향이 높고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였다[22, 23, 24, 25, 26]’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연구대상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에서 논의의 한계와 제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내용적으로 많이 일치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증가시킬 동기이론을 이론적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 문제와 학업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를 상호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교실’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먼저 자기보고식 설문문의 한계점과 집단의 대표성 한계를 극복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층면담과 종단연구를 통해 외적보호요인과 내재적 학습동기 요인의 변인 간 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학교차원의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내재적 학습동기 하위요인인 ‘적절한 모험성과 도전추구’가 높게 나온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학교차원의 상호작용을 내재적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변인관계를 새롭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현장지도자나 이론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 내재적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Statistics Analysis. 2012
- [2] Hyung-Soo Kim, and Eul-Jin Shin. Manual Consultation Learning School. Institut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3] Tae-Yun Jung, and Min-Hee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 Scal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3. pp. 295~321. 2007
- [4] Reeve, J.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 New York: Wiley, 2005
- [5] Mi-Sun Yun. "Effects of Thinking Styles on Academic Achievement with the Media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ubject-specific Interest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3
- [6] White, R.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 49-78. 1959
- [7] Byung-Yeon Choi, Deborah Stipk and Yun-Jun Sung. "Motivation to Learn." *Hakjisa*. 2009
- [8] Block, J. H., &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9]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e Psychology*, 13, 39-101. 1980
- [10] Han-Ik Jo, and Harriot Lee. "A Validation Study of the Resilience Scal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8, No. 2, 353-371, 2006
- [11] Gil-young Kim, and Sung-Je Cho.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Suicide Prevention-Based on External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31-2139, 2013
- [12] Su-jeong Lee. "The Effect of Self-Esteem Improvement Camp Training on Self-Esteem and Learning Motivation of Children with Under achieve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2
- [13] Eun-Hee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ass Room Teachers' Empowering Leadership Practices,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lassroom Climate, Problem-Solving Skills, and Intrinsic Academic Motiv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2. pp. 141~172. 2008.
- [14] Man-Pyo Lee. "Analysis of the Effects of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Work Capacity on Learning Motive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2 No.2, pp 123-151, 2009
- [15] Yoon-Joo Lee.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Support on Suicidal Behavio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amily and Culture." 21(3), 57-71. 2009.
- [16] Yeon-Ok Lim, Jae-Yeon Park and Hyun-Sook Yoon. "Suicidal Impulse Caused by Stress in Korea: Focusing on Meditational Effects of Existent Spirituality,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1(4), pp. 81~105, 2010
- [17] Hee-Sun Lee, and Hyun-Jung Sunwoo.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ommunication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9 No. 6. 2011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1.49.6.109>
- [18] Eun-Mi Lee, In-Jeon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7No. 1, pp. 3-24. 2002
- [19] Young-Min Kim, Young-Sik Lim. Structural Model of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Cell phone Dependency, Self-directed Learnin, *Studies on Korean Youth*, 2012. Vol. 23. No. 2. pp. 273~299. 2012
- [20] Jae-Hong Ko, Kyung-Ran Yu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1. pp. 185~212. 2007
- [21] Sung-Taek Lim, Sung-Hyun Kim, Jin-Ho Kim, Jong-Sun Ba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Environments and Dispositions on Adolescents' Internet-Immersion, *Studies on Korean Youth*, 6(1), 477-510. 2005
- [22] Seong-gyeong Yu, Hye-won S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3] Block, J. H., &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24] Fassig, E. I., Attachment and resilience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in college freshmen. dissertation of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2003
- [25]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6, pp. 265-293. 1995

DOI: <http://dx.doi.org/10.1146/annurev.ps.46.020195.001405>

[26] Klohmen, E. 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5.1067>

[27] In-Sub Song. "The Field for the Application of Self-directed Learning." Seoul: Hakjisa. 2007

[28] Marzano, Robert. J., Debra J. Pickering and Jane E. Pollack. "Classroom Instruction That Works: Research-Based Strategies for Increasing Student Achievement."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 2001

[29] Noo-Ree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개발,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정보보안, 사회 복지조사

김 길 영(Gil-young Kim)

[정회원]



- 2009년 3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입학
- 2012년 2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상담복지